올 한해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12월

올 한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 검도 외에도 탁구와 베드민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통해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고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하루가 다르게 커서 이제는 다 저와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축구를 하였는데 같이 축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 월에 지키는 마지막 아버지의 날에.

태국은 왕의 생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현재의 아버지 날은 9 대왕의 생신이기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왕의 생일로 아버지 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이 되면 아이들은 감사카드를 쓰고 아버지에게 놀러 가자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이들하고 놀지만 축구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방콕 오픈검도대회 참관기)

12월 15일은 나카네 검도대회가 열리기에 우리는 왕복 20여 시간의 긴여행을 다녀와야 합니다. 지난 11월에 치른 선발전에서 12명의 선수들을 포함하여 전체 17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인 루루 3단, 케나다인인 케더린 3단과 검도를 시작한지 6개월된 태국 형제와 한국에서 유학와서 검도를 하는 서윤이와 태윤이가 그들입니다. 각자가 방콕으로 와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13일에 열두시간의 방콕으로 이동하여야 했는데 우리는 중간에 아유타야 왕국의 유적을 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유타야에서 유적지를 둘러본 후 선교사님의 센터로 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가진후 잠을 자야 했습니다. 선풍기를 이쪽 저쪽에서 트는데 저는 추워서 힘드는데 아이들은 덥다고 난리입니다.

14일 오전에는 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최찬영 선교사님이 사역하였던 방콕 제2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2시까지 1878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최 선교사님이 언제 사역하였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에게도 역사를 알려주기 위하여 가보았는데 얼마나 잘 성탄 준비를 하였는지? 주신 역사자료에서 확인하였는데 1958년부터 2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12시까지는 심사를 위해 대회장으로 가야했습니다. 라는 2단을 보았고 까이를 비롯하여 쏨차이, 바오로, 남완, 몬, 모세, 마튜가 특별 1급을 보아 다 붙었습니다. 검도하는 아이들에게 단을 따주어야 했는데 마침 이런 제도가 생겨 감사했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못한 10년 연속 챔피언의 기록

15일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앞집에 가서 쌀국수를 먹고 차에 가면서 간단하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7시 반도 안되었는데 오픈대회로 치뤄지기에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10개국에서 250여명의 선수들이 왔고 심판들과 온 사람을 합치면 3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청소년들도 미얀마와 베트남에서 참여하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라차팟 대

학의 체육관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사무엘이 선전을 하였지만 성적을 내지 못하였고 학생부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챔피언에게 마투나 바오로가 선전하였지만 역전패로 아쉽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3년동안 챔피언이었던 쏨차이는 일본 선수에게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쏨차이에게는 점수를 주지 않은 세명의 일본 심판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지만 3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10년의 챔피언의 전통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라와 까이와 몬과 남완이 출전하였는데 기대를 하였던 라(작년에는 3위를 하였음) 한국 선수를 만나 무릎을 꿇어야 했고 남완이도 3승을 하였지만 한국 선수에게 졌지만 열심히 싸워 스피릿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다보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느낌이었고 1분 30초에 하다보니 한점 승부여서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시합이 모두 끝나고 몇몇 분들과 사진을 찍고 우리는 봉고에 올라 또다시 열시간의 장도에 올라야 했습니다. 오다가 잠시 밥을 먹고 집에 도착하니 새벽 4시가 되었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했고 저도 허리가 아픈지 푹 쉬어야 했습니다.

그홈을 방문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태국에 대한 특강을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졸업생들이 그홈을 방문하였다.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한국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방문하였는데 아이들은 한국 음식을 맘껏 먹을 수가 있었고 준비해오신 가방이며 성탄 선물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과 한시간이 넘게 특강을 하였는데 두시간이 넘게 진행된 시간임에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질문하였다. 태국은 사회복지가 더 필요한 나라이지만 서로 돕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사회이기도 하다.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미얀마에서 한 가족의 선교사님과 라오스에서 한가족이 오셨다.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같이 교제하고 대접하고, 사역을 소개하기도 하고 치앙마이의 선교 역사를 설명하며 탐방하게 하니 오기를 잘했다고 감사한다고 하신다. 오신 분들이 힘을 얻어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홈 컴잉데이는 없었지민 아이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다.

올해는 법인 이사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다. 지근거리에서 사역하는 최선교사님이 그레이스 홈 아이들 모두를 초대해주셔서 우리는 성탄 예배를 생략할까도 하였으나 우리끼리 성탄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며 열심히 율동과 안무를 준비하였다. 혹시 이 시대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면 우리 가슴속에 오도록 그를 영접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는 법인 이사들에게는 정성스레 선물을 준비하여 드렸다. 지난 십여년동안 부족한 우리와 함께해주신 귀한 분들이다.

그레이스 홈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권삼승 서양숙 선교사와 그레이스 홈의 모든 식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2) 그레이스 홈에서 고 3 에 다니는 네명(쏨차이, 몬, 남완과 룻)의 아이들과 직장에 다니는 까이와 남딴, 유학중인 죤과 대학에 재학중인 라와 꼽과 쏨밧과 에스더 그리고 인턴 실습중인 워라멧과 에스더가 비젼을 가지고 공부하며 일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한국에서 발렌티어로 열심히 살고 있는 하영이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영주권과 5월 8일에 결혼하는 기준이가 비자와 직장을 구하는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4) 그레이스 홈에서 사춘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레이스 홈의 필요가 공급되고 아이들 각자의 후견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